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심

- 14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 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 15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 공간의 빛이 돼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 16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 17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 18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습니다.

•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심

- 20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 라" 하셨습니다.
- 21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 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 22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 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3 묵상하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낮과 밤, 계절과 시간의 맨 처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말씀은 그 질서를 만드시고, 만드신 질서 안에서 생명이 번성해 지구 안에 가득 차게 하신 하나님의 설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우주의 규모, 그리고 행성들의 완벽한 질서와 운행으로 시간과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며 경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질서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질서까지 다스리시는 완전한 존재의 설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으신 자연을 보며 그 피조물 자체가 위대한것인양 찬양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4 적용하기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학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상과 이해를 넘어서는 이 엄청난 설계가 과연 우연히 형성된 것일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고 엉뚱하게도 과학이나 학문, 자연이나 사람을 따르는 어긋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이 세상이 “빅뱅 이론”과 같은 우연한 현상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임을 분명히 믿나요?
- ② 매일 뜨고 지는 해와 달, 주기적으로 변하는 계절, 아침에 지저귀는 새들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묵상하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게 해 주세요.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1 2 3

- 14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 15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 공간의 빛이 돼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 16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 17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 18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습니 다.
- 20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 21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 22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 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습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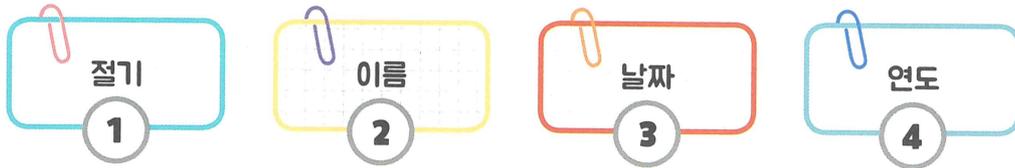
• 궁금 사전

- *절기:한 해를 나눠 계절의 기준이 되는 것
- *연도:일 년의 기간
- *번성:많아지고 퍼짐

• 말씀 씨앗

하나님은 낮과 밤을 나누어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셨지요.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시간과 계절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물과 하늘에 생물들을 가득 채우시고 새끼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과 생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예요.

3 말씀새싹 - 하나님은 빛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으로 나누어 무엇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셨나요? 모두 찾아 ○표 하세요.



4 그림을 보며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 정답은 예조 인스타그램(@yejoqt)에 공개됩니다.



◀ 숨은그림찾기 : 우산, 샌들, 모자, 가방, 음표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과 물에 사는 생물과 새들을 만드셨어요.

5 기도하기

하나님,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